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4(2) : 169~185, 2013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4(2) : 169~185, 2013
http://dx.doi.org/10.7856/kjcls.2013.24.2.169

아동의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 윤 미 · 이 숙[1)†]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대학원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1)]

The Influences of Children's Gender and Temperamen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s on Ego-resilience of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o, Yun Mi · Lee, Sook[1)†]
Graduate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ersity, Gwangju, Korea[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mperament of chil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ocial support. The data was collected from 5th to 6th grade 405 children living in Kwangju. For statistical analysis, Cranbach' α,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mak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relative impact of gender on Ego-Resilience, sub-factors of child'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and friend's social support were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and predictors of ego-resili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ego-resilience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o predict a child's temperament(attention). Ego-resilience was impacted according to the child's temperament(activity mood), friend support, maternal parenting behavior(rational guidance), in addition to the child's temperament(activity level).

Key words: child'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behavior,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I. 서론

급속도로 변화해가는 현대사회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응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이러한 내적 긴장을 해소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적응능력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접수일: 2013년 2월 4일 심사일: 2013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4일
†**Corresponding Author**: Lee, Sook Tel: 82-62-530-1323
e-mail: sookleej@hanmail.net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그러나 전국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Mim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5.8%가 정서와 행동에 부적응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Supreme Prosecutor's Office 2010)에 따르면,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이 폭력에 연루되는 사건과 14세미만의 소년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내용도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의 부적응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아동기의 부적응행동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부적응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중재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Chae 2009).

최근에는 이러한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완화시키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개인의 심리내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내적, 외적 스트레스 상황에 자기통제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기능을 유지하고 부정적 정서경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적응능력이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아동의 성공적인 적응생활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아동의 문제행동과 적응력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그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문제행동의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Heo 2012).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을 살펴봤을 때 자아 탄력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비탄력적인 아동들은 탄력적인 아동들에 비해 적응상의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n 1998). 이처럼 아동기는 내적 긴장과 환경적인 압력에 의해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고, 이러한 영향들이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러한 요인을 통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Kwon 2007).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요인은 연구대상자의 발달단계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Gore & Ecknrde(1996)은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자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Shin(2003)은 개인의 기질적 요소, 가족적 요소 그리고 외부적 지지원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볼 때 여러 연구자들이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Emery & Forehand 1996; Kriby & Fraser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인을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에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중 자아탄력성과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제시되어온 변인 중 아동의 기질을 들 수 있다. 기질은 사람이 동일한 환경적 상황에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경향성(Garmezy 1985)으로 성격의 요소가 되며, 인간의 행동특성이 되는 동시에 항상성을 가지고 개인차를 밝혀주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개인적 요인에 적합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Jung 2011). 이러한 아동의 기질과 자아탄력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im(2001a)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탄력성은 어머니의 아동 기질 평가나 어머니의 자녀 만족도 보다는 아동이 평가한 기질과 더 많은 관련이 있었는데,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기질에 대해 높게 평정할수록 탄력성이 높았다. Kim(200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기질이 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Kwon(2007)의 연구에서는 밝은 정서를 가지고 생리적으로 규칙적이며 변화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순한 기질일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mer(1985)는 발달적 맥락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이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스타일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다양한 순환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의 기질이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도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내는 능력인 대인 문제 해결사고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비춰볼 때 아동의 기질은 자아탄력성을 설명해 주는 개인적 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 중 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까지 연구들은 성에 대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Bang(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적응에 관련된 성격차원이고 역동적 성격과정(Block 1980)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Kwon(2002)의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2008a)의 연구에서는 전체 자아탄력성에서는 성별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에서만 여아가 남아에 비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반응하며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얻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Block & Kremen (1996)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Block(1993)은 이런 차이를 남자아이들에 비해 여자아이들이 사회적 제도나 관습, 규범 등으로 규정된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Oh(2008)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전체 자아탄력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점수에서는 여아는 남아보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에서는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처럼 성에 대한 연구 중 일부는 남아가 여아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여 낮은 자아탄력성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으로 유능하여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 또래관계에서 갈등도 적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여아가 위험요인에 따른 영향을 남아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으로 성이 여아에게는 탄력적인 능력을 부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남아에게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Dixon 2002). 그러나 Werner(1984)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십대가 되면서 여아의 문제도 부각되어 아동의 성이 탄력성의 보호요인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어 이러한 일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점차 핵가족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예전보다 가족구성원 중 특히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요인 중에서 먼저 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육태도와 행동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Park & Lee 1990). 이러한 양육태도는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주변의 의미 있는 타인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탄력성(England et al. 1993)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Masten & Coatsworth(1998)이 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요약한 것을 살펴보면, 탄력성이 높은 아동들과 취약한 아동들을 변별하도록 알아내는 가장 일관적인 변인들 중 하나로 양육적인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일관적이고 매우 구조화되고, 온정 및 민감성과 조합된 연령에 적합한 훈육방식, 행동 및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양육 효율성에 대한 강한 지각을 포함하는 부모의 양육은 위험의 영향을 완충시켜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탄력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선행연구들(Jun 2008; Jin 2009)에서 살펴보듯이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발달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지적이고 민주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돕고 아동의 자아탄력성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Kwon 2011). 또한 부모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과잉통제 및

제한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돌봄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낙관성이 높고 활력성, 대인관계 역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Lee 2001). Jung(2002)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성취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Lee(198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아동들이 대체로 높은 욕구지연 행동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 Jo(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문제행동 간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안정적 애착형성을 돕고 나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Park 2009). 사회적 지지는 넓은 의미로 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유형적, 무형적 자원으로 Calin & Killilea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제공, 문제에 대한 지침제공 행위에 대한 피드백의 제공을 통해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개체사이 또는 개체와 집단 사이의 애착으로 정의(quoted in Park 1985)하고 있다. Song & Won(1988)은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원을 지각된 사회적 지지라고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몇 가지 특성이 다른 요인들로 구성된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개념이라고 했다. Park(2000)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란 사랑이나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하위요인이라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완충제 역할을 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케 하며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Park 1985). 아동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의 적응을 위해 부모, 친구 등 의미있는 타인의 도움과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은 중요하며(Kim 1997a),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는 일반 아동의 전반적인 적응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ee & Choi 1996).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주어지는 지각된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Kwon 2007).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우울 및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과 신체적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며(Kang 1992), Kim(1995)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 관계망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경험과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대처전략을 증진시켜 적응행동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구성원들로부터의 지각된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위기를 적게 지각하고 적응하게 하는 탄력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Jung 2011). 이와같이 개인의 적응을 돕고, 문제 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문제 해결의 중재 노력 시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Chae 2009).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서 각각 선정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별로 각 변인들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별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전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개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학생 5, 6학년으로 선정한 이유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의적인 발달이 만 10세 이후부터 형성되며(Bloock & Kreman 1996), 이 시기의 아동들은 다른 학년에 비해 부과되는 과제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비해서 내적 긴장과 환경적인 압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Kwon 2007).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기질 척도, 모의 양육태도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설문지이다.

1) 기질 척도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Lerner(1986)가 개정한 DOTS-R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Lee (1994)의 '아동 및 청소년 기질 척도'를 본 연구자가 일부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Section	N(%)	Variables	Section	N(%)
Gender	Male	215(53.1)	Economic condition	High ranking	39(9.8)
	Female	190(46.9)		Medium	324(81.8)
Grade	5th	259(64.1)		Low ranking	33(8.2)
	6th	145(35.9)	Mother's education	Under middle	8(2.2)
Father's education	Under middle	15(3.7)		High school	96(23.7)
	High school	65(16.0)		University	218(53.9)
	University	208(51.4)		Over graduate school	43(10.6)
	Over graduate school	75(18.5)			
Father's occupation	Specialty management	44(11.3)	Mother's occupation	Specialty management	52(13.2)
	Office job	207(53.2)		Office job	86(21.2)
	Service industries	26(6.4)		Service industries	48(11.9)
	Production employee	34(8.4)		Production employee	8(2.0)
	Self-employed	40(9.9)		Self-employed	30(7.4)
	Unemployed	3(0.7)		House wife	154(38.0)
	Etc	35(8.6)		Etc	17(4.2)
			Birth order	First	127(31.8)
				The middle	48(11.9)
				The last	199(49.1)
				Only child	26(6.5)

※결측값으로 인하여 빈도에 차이가 있음.

Lee(1994)의 기질 척도는 본래 6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 중기 아동에게 중요하게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4가지 기질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4가지 차원 중 활동성은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수준을 의미하며, 접근성은 자극을 향해 움직이는 정도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용이성을 말한다. 기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정서적 균형의 정도를 의미하며, 주의집중성은 외적 자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집중하고 한가지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정도를 말한다.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들을 제외시키고, 21문항이 결과분석을 위해 사용되어졌다.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해당하는 기질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각 하위요인 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활동성 .67, 접근성 .64, 기분 .67, 주의집중성 .73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Park & Lee(1990)의 양육행동척도 중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되어지는 4가지 양육행동을 선정하여 문항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설명해주는 합리적 지도,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을 존중, 수용해주는 애정, 그리고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과보호와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통제로 구성되었다.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며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합리적 지도는 .81, 애정은 .93, 과보호는 .77, 권위주의적 통제는 .81로 나타났다.

3) 사회적지지 척도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1997b)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교사에 대한 지지를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Lim 2003; Kim 2008b)을 참고로 교사지지의 요인을 제외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부모지지, 친구지지 각 24문항으로 아동이 부모와 친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지지의 정도에 따라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다.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가족지지는 .96, 친구지지는 .96으로 나타났다.

4) 자아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Park(1996)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계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주고,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력성은 우울할 때보다는 즐거울 때가 많으며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통제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욕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호기심은 궁금한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낙관성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보는 편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 자신이 질문을 읽고 그에 해당되는 것에 각자 표

시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이며 각 문항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을 부여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채점하였다. 본 측정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활력성은 .81, 감정통제는 .93, 호기심은 .77, 대인관계는 .81, 낙관성은 .69로 나타났으며 척도 전체의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검사지의 내용을 점검하고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참고로 하여 검사의 내용 이해와 질문의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문항여부를 확인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본 조사는 초등학교 두 곳을 임의표집하고 각 학교의 학년 당 2개 학급씩을 다시 추출하여 남녀학생 4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430부를 배부하여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한 405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조사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해당 학교 학급의 교사에게 실시 요령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선생님의 지도하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아동의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전체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모형을 구성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기초로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15**	1															
3	.16**	-.28**	1														
4	.03	.19**	.33***	1													
5	.01	-.01	.31***	.50**	1												
6	.03	.13*	.11*	.31**	.40**	1											
7	.01	.14**	.10*	.35**	.41**	.78**	1										
8	-.24	.24**	-.34**	-.02	-.07	.17**	.18**	1									
9	-.05	.07	-.26**	-.27**	-.21**	-.32**	-.43**	.20**	1								
10	.03	.22**	.07	.41**	.40**	.65**	.75**	.15**	-.37**	1							
11	.20**	.23**	.15**	.42**	.33**	.40**	.40**	.05	-.15**	.53**	1						
12	.07	.21	.28**	.66**	.66**	.51**	.52**	.02	-.24**	.51**	.55**	1					
13	.18**	.14**	.16**	.44**	.49**	.46**	.45**	.04	-.15**	.49**	.58**	.82**	1				
14	.12*	.38	.20**	.61**	.54**	.47**	.48**	.03	-.18**	.51**	.55**	.87**	.70**	1			
15	-.02	-.06	.33**	.60**	.53**	.26**	.34**	-.06	.30**	.27**	.24**	.69**	.41**	.44**	1		
16	.02	.23**	.12**	.34**	.48**	.40**	.34**	.08	-.02	.32**	.42**	.74**	.59**	.61**	.25**	1	
17	-.01	.13*	.32**	.61**	.57**	.45**	.45**	-.01	-.28**	.43**	.42**	.85**	.58**	.68**	.61**	.52**	1

*p<.05 **p<.01 ***p<.001

1. gender 2. activity level 3. accessibility 4. mood 5. attention 6. rational guidance 7. affection 8. overprotection 9. authoritarian control 10. family support 11. friend support 12. ego-resilience 13. friend relationships 14. vitality 15. emotion control 16. curiosity 17. optimism

사회적지지가 모두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여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의 하위요인이 사회적 지지와 .78로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애정을 제외한 합리적 지도, 과보호, 권위적 양육태도만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인군의 투입순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im 2001b; Jung 2011)를 통해 성과 기질을 기본 변인군으로 하여 1단계에 투입하고 기질이 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Jo 2005; Kim 2006)를 바탕으로 모의 양육태도의 변수를 2단계에 투입하였고, 사회적 지지를 3단계에 투입하였다.

모델Ⅰ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성별(β=.07, p<.05),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17, p<.001), 기분(β=.38, p<.001), 주의집중(β=.45,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기질을 포함한 개인적 변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61%였다.

모델Ⅱ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07, p<.05), 활동성(β=.14, p<.001), 기분(β=.36, p<.001), 합리적 지도(β=.23,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행동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5%가 되었으며 모델Ⅰ에 비해 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추가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활동성(β=.10, p<.01), 기분(β=.31 p<.001), 주의집중(β=.35, p<.001), 합리적 지도(β=.12, p<.001), 친구지지(β=.21,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8%가 되었으며, 모델Ⅲ에 비해 3%가 증가하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의집중(β=.36, p<.001), 기분(β=.31, p<.001), 친구지지(β=.21, p<.001), 합리적 지도(β=.18, p<.001), 활동성(β=.10,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of Ego-Resilience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08	.07*	.07	.07*	.02	.02
Temperament	Activity level	.11	.17***	.09	.14***	.07	10**
	Mood	.27	.38***	.25	.36***	.22	.31***
	Accessibility	.04	.06	.04	.06	.03	.05
	Attention	.32	.45***	.27	.38***	.25	.35***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14	.23***	.07	.12*
	Overprotection			.01	.01	-.00	-.00
	Authoritarian control			.01	.02	.02	.03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4	-.06
	Friend support					.12	.21***
	F	122.83***		90.95***		82.28***	
	R^2	.61		.65		.68	
	$\triangle R^2$	.61		.04		.03	

*p<.05 **p<.01 ***p<.001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에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에 기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Jung(201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Kwon(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2. 아동의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1) 활력성에 대한 성별, 아동의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Ⅰ에서 활력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활력성은 성별(β=.15, p<.001),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36, p<.001), 기분(β=.34, p<.001), 주의집중(β=.36,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활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56%였다.

모델Ⅱ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활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14, p<.001),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33, p<.001), 기분(β=.33, p<.001), 주의집중(β=.28, p<.001), 합리적 지도(β=.22,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0%가 되었으며 모델Ⅰ에 비해 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추가하여 활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10, p<.01),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29, p<.001), 기분(β=.28, p<.001), 주의집중(β=.26, p<.001), 합리적 지도(β=.15, p<.001), 친구지지(β=.1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63%가 되었으며, 모델Ⅲ에 비해 3%가 증가하였다.

활력성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활동성(β=.29, p<.001), 기분(β=.28, p<.001), 주의집중(β=.26, p<.001), 친구지지(β=.19, p<.001),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of vitality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21	.15***	.19	.14***	.13	.10**
Temperament	Activity level	.32	.36***	.30	.33***	.27	.29***
	Mood	.33	.34***	.31	.33***	.26	.28***
	Accessibility	.05	.05	.05	.05	.04	.05
	Attention	.34	.36***	.27	.28***	.25	.26***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18	.22***	.12	.15
	Overprotection			-.02	-.02	-.03	-.03
	Authoritarian control			.03	.04	.03	.04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3	-.04
	Friend support					.15	.19***
	F	103.30***		73.71***		65.82***	
	R^2	.56		.60		.63	
	$\triangle R^2$	.56		.03		.03	

*p<.05 **p<.01 ***p<.001

합리적 지도(β=.15, p<.001), 성별(β=.10, p<.01)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기분에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잘 이룰수록,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성별에 있어서는 남아보다 여아일수록 활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 감정통제에 대한 개인적 변인(성별, 아동의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 I 에서 감정통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감정통제는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14, p<.001), 기분(β=.47, p<.05), 주의집중(β=.28,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활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46%였다.

모델 II 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감정통제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14, p<.01), 기분(β=.45, p<.001), 주의집중(β=.27, p<.001), 권위주의적 통제(β=-.11,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47%가 되었으며 모델 I 에 비해 1%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감정통제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분(β=.46, p<.001), 주의집중(β=.28, p<.001), 활동성(β=-.13, p<.01), 권위주의적 통제(β=-.12, p<.01)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기분에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잘 이룰수록,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활동성이 낮을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제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감정통제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호기심에 대한 성별, 아동의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 I 에서 호기심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23, p<.001), 주의집중(β=.45,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이 자아탄력성에 미치

Table 5. Hierarchical regression of emotion control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09	-.07	-.09	-.07	-.09	-.07
Temperament	Activity level	-.12	-14***	-12	-14**	-.11	-.13**
	Mood	.43	.47***	.40	.45***	.42	.46***
	Accessibility	.05	.06	.04	.05	.04	.04
	Attention	.25	.28***	.25	.27***	.25	.28***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01	-.01	.02	.02
	Overprotection			.02	.02	.02	.03
	Authoritarian control			-.09	-.11*	-.10	-.12**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5	-.07
	Friend support					.00	-.00
	F	67.45***		43.50***		34.93***	
	R^2	.46		.47		.47	
	$\triangle R^2$	.46		.01		.00	

*p<.05 **p<.01 ***p<.001

는 설명력은 30%였다.

모델Ⅱ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호기심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활동성(β=.19, p<.001), 주의집중(β=.37, p<.001), 합리적 지도(β=.24, p<.001)와 권위주의적 통제(β=.15, p<.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행동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35%가 되었으며 모델Ⅰ에 비해 5%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추가하여 호기심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활동성(β=.16, p<.01), 주의집중(β=.36, p<.001), 합리적 지도(β=.23, p<.001), 권위주의적 통제(β=.13, p<.01), 친구지지(β=.22,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38%가 되었으며, 모델Ⅲ에 비해 3%가 증가하였다.

호기심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의집중(β=.36, p<.001), 합리적 지도(β=.23, p<.05), 친구지지(β=.22, p<.001), 활동성(β=.16, p<.001), 권위주의적 통제(β=.13,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활동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권위주의적 통제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호기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친구관계에 대한 성별, 아동의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Ⅰ에서 친구관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19, p<.001)과 자아탄력성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β=.12, p<.01), 기분(β=.23, p<.001), 주의집중(β=.39, p<.0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기질을 포함한 개인적 변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33%였다.

모델Ⅱ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18, p<.001), 기분(β=.20, p<.001), 주의집중(β=.30, p<.001), 합리적 지도(β=.27,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

Table 6. Hierarchical regression of curiosity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07	.05	.06	.04	.00	.00
Temperament	Activity level	.18	.23***	.15	.19***	.13	.16**
	Mood	.06	.07	.06	.07	.03	.04
	Accessibility	.01	.01	.03	.04	.02	.02
	Attention	.39	.45***	.32	.37***	.31	.36***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18	.24***	.17	.23***
	Overprotection			.01	.01	.00	.01
	Authoritarian control			.12	.15**	.10	.13**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7	-.09
	Friend support					.16	.22***
	F	33.41***		26.35***		23.80***	
	R^2	.30		.35		.38	
	$\triangle R^2$	.30		.05		.03	

*p<.05 **p<.01 ***p<.001

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39%가 되었으며 모델Ⅰ에 비해 6%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추가하여 친구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11, p<.01), 기분(β=.11, p<.05), 주의집중(β=.25, p<.001), 합리적 지도(β=.14, p<.01), 친구지지(β=.33,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48%가 되었으며, 모델Ⅲ에 비해 9%가 증가하였다.

친구관계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지지(β=.33, p<.001), 주의집중(β=.25, p<.001), 합리적 지도(β=.14, p<.01), 성별(β=.11, p<.01),기분(β=.11,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남아보다 여아일수록, 기분에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잘 이룰수록 친구관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5) 낙관성에 대한 성별, 아동의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지지의 상대적 영향력

모델Ⅰ에서 낙관성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기질의 하위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기질의 하위요인의 활동성(β=.08, p<.05), 기분(β=.39, p<.001), 접근성(β=.11, p<.01), 주의집중(β=.34, p<.001)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기질을 포함한 개인적 변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48%였다.

모델Ⅱ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하여 낙관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기분(β=.36, p<.001), 접근성(β=.11, p<.01), 주의집중(β=.27, p<.001), 합리적 지도(β=.20,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양육태도의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52%가 되었으며 모델Ⅰ에 비해 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모델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변인을 추가하여 자아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기분(β=.34, p<.001), 접근성(β=.10, p<.01), 주의집중(β=.26, p<.001), 합리적 지도(β=.19, p<.001), 친구지지(β=.11, p<.05)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

Table 7. Hierarchical regression of friend relationships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23	.19***	.22	.18***	.13	.11**
Temperament	Activity level	.09	.12**	.06	.08	.01	.01
	Mood	.18	.23***	.16	.20***	.09	.11*
	Accessibility	-.03	-.04	-.01	-.02	-.02	-.03
	Attention	.32	.39***	.24	.30***	.21	.25***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19	.27***	.10	.14**
	Overprotection			.02	.03	.01	.01
	Authoritarian control			.03	.05	.04	.06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7	.10
	Friend support					.22	.33***
	F	39.69***		31.81***		36.45***	
	R^2	.33		.39		.48	
	$\triangle R^2$	.33		.06		.09	

*p<.05 **p<.01 ***p<.001

Table 8. Hierarchical regression of optimism

Independent variable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B	β	B	β	B	β
Gender		-.03	-.02	-.04	-.03	-.07	-.05
Temperament	Activity level	.07	.08*	.05	.06	.04	.05
	Mood	.34	.39***	.32	.36***	.30	.34***
	Accessibility	.10	.11**	.09	.11**	.09	.10*
	Attention	.31	.34***	.24	.27***	.24	.26***
Maternal attitude	Rational guidance	-2.18		.15	.20***	.14	.19***
	Overprotection			.00	.00	.00	.00
	Authoritarian control			-.03	-.04	-.03	-.04
Social support	Family support					-.02	-.03
	Friend support					.08	.11*
	F	.74.59***		53.66***		44.04***	
	R^2	.48		.52		.53	
	$\triangle R^2$	.48		.04		.01	

*p<.05 **p<.01 ***p<.001

회적 지지변인을 추가함으로써 전체 설명력은 53%가 되었으며, 모델Ⅲ에 비해 1%가 증가하였다.

낙관성에 대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기분(β=.34, p<.001), 주의집중(β=.26, p<.001), 합리적 지도(β=.19, p<.001), 친구지지(β=.11, p<.05), 접근성(β=.10, p<.05)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기분에 있어 정서적 균형을 잘 이룰수록, 주의집중이 높을수록, 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합리적 지도를 한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접근성이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체자아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자아탄력성에 성과 기질, 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를 투입한 결과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군은 개인적 요인인 기질변인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개인적 요인인 기질이 자아탄력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Kwon 2007)를 지지해주는 것으로서, 기질적으로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조기진단 및 중재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기질의 하위요인중 주의집중과 기분, 활동성의 순으로 자아탄력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의집중이 높고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아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집중문제가 있는 경우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Kim 2009a)는 연구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 외부의 환경적인 변화에 풍부한 적응능력을 갖는 자아탄력성이 높다(Kim 2009c)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주의집중은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서, 주의집중을 잘 한다는 것이 자아탄력

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의집중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주의집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력성의 하위요인에서는 활동성, 감정통제와 낙관성에서는 기분, 호기심에서는 주의집중, 친구관계에서는 친구지지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여러 측면이 각각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아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기질 뿐 아니라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와 같은 양육태도와 친구의 지지도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은 개인적 요인인 기질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도 함께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질적 문제가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합리적으로 잘 지도하고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구체적 기술 등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을 고학년 아동의 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양육태도의 질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지지적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셋째, 부모의 합리적 지도는 활력성과 호기심, 친구관계, 낙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권위주의적 통제는 호기심과 감정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이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줌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양육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유아의 기분이나 행동의 전환성이 높다고 보고한 Choi(2010)의 연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일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Jo(2010)의 연구에서 보듯이, 모의 합리적인 지도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활력성을 높이고 호기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겠다. Wyman et al.(1999)은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 즉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 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늘 애정적으로 지지·격려하고 언어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수록 아동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자신감을 가지고, 낙관성이 높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큰 상관이 있음을 시사한다(Kwon 2011). 따라서 자녀가 자아탄력성의 어느 하위요인이 취약한지에 따라 해당 양육태도 하위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기질 중 기분은 호기심을 제외한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낙관성이나 감정통제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였다. 대체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고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게 되는데(Morris & Reilly 1987), 이러한 감정적 경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개인의 적응과 대인관계서의 성공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낙관성에 중요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 중 친구지지는 호기심과 친구관계 및 낙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은 활력성과 친구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남아보다 여아인 경우 친구관계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환경에 대한 변화와 스트레스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친구의 지지가 친구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2002; Lee 2004)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성이 여아에게는 탄력적인 능력을 부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남아에게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Dixon 2002)는 주장을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만을 선정하였는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날로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함께 포함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의 초등학교의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표집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친구의지지 등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정기적인 부모교육이나 또래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이나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설명력이 활력성이나 낙관성에 비해 호기심에서 다소 낮게 나타나, 자아탄력성 중 호기심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개인적인 요인인 성과 기질, 그리고 환경적 요인인 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지지, 친구지지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자아탄력성 전체 및 하위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서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하기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References

Bang SS(2008) The relationship among the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Block J, Kremen A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 Personality Social Psychol 70(2), 329-361

Block JH,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 Minnesota Symposia Child Psychol 13, 39-101

Chae SH(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ocial-support and ego-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oi EH(2010)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ild-rearing, atttitude, and creativity.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ixon SJ(2002) Attitudes that reflect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coping respond and protective factors in Afr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mery R, Forehand R(1996)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well-being :A focus on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Dherrod, N. Garmezy., & M Rutter(Ed.). Stress, risk and resilience on children and adolescents: Prcesse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England B, Carlson E, Sroufe LA(1993) Resilience as process. Development Psychol Pathol 5, 517-528

Garmaezy N(1985) Stress 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In J. E. Stevenson (Ed.), Rec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 pathology. NY: Pergamon Press

Heo MJ(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Jo GS(2005)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level on adolescent'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Jo GY(2006)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ego-resiliency, psycholigical home environment(parenting behavior, family strenghth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aster's Thesis, Kyungnam Masan University

Jo SJ(2010) Relationships among oh parents' 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Jin YH(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other and ego resilience of 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Cheonbuk University

Jun, EH(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n pser-child interaction and resilience of young children. Doctoral'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ung JY(2011) Effects of temperament, family strength and social support on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Jung JH(2002) The relationship among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ego-resilien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children's friendship.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ang SH(1992)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Master's Thesis, Sookmyun Women's University

Kirby L, Fraser M(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In M. Fraser(Ed..).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10-33

Kim EM(2009a) The effect of physical activity games using picture books on children's attention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ty

Kim GH(1997a) A study on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Kim HS(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high school student.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ty

Kim HK(2009c)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im SK(2004) The path analysis among risk-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Doctoral'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im SM(1997b)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adaptability to school lif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im SB(2008a) Children's perceived daily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im JY(2008b) The 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subjective well-being, stress level and coping methods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im MS(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ry school students'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behavior. Master's Thesis, Honggik University

Kwon YA(2002)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rearing attitudes and their infant's emotional quotient. Master's Thesis, Kyeonggi Education University

Kwon JE(2002)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Kwon JH(2007) A study on explanatroy variables of ego-resilience of children.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Kwon HJ(2011) The effects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on children's ego-resilience :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behavior inhibition.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Kwon EK(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s and child's self-resiliency. Master's Thesis, Daegu National University

Lee S, Choi JA(1996) A study on the children's self-esteem and the related variables such as children's sex, social cla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 Sci Better Living 6, 1-8

Lee SY(1985) Effects of child-rearing attitudes on the delay gratification of children's need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Lee EM(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child bonding relationship and children's ego-resiliency.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Lee MS(1994)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eer-support on the self-evaluation early adolescents. Doctoral'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e WJ(2002)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in at-risk children. Korean Assoc Child Stud

Lee YJ(2004)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childre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Lerner RM(1986) Concepts and theories human development (2nd ed.). N.Y.: Random House

Lemer JV(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Child Psychol Pschiatry 26(1), 125-136

Lim Y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life adjustment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Cheonbuk National University

Lim GY(2001a) Predictors of children's resilience: maternal depression, child's temperament and mother's satisfation with them. Master's Thesis, Sunshin Womans University

Lim HS(2001b)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Lim SJ(2003)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 type,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 Doctoral's Thesis, WonKwang University

Masten AS, Coatsworth DJ(1998) Competence, resilience, and psychopathplpgy. In D. Cicchetti & D. J. Cohen(Ed). Developmental Psychol 2, 715-75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 Mental Health Screening Test 2006.08.03

Morris WN, Really NP(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ch. Motiv Emot 11, 215-249

Oh HJ(2008) Parent-child communication recognized by child and child's ego-resilience.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ark EH(1996)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resiliency, iq and academic achievement.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ark SY, Lee S(1988) Korea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J Korean Child Stud 23(1), 143-156

Park SY, Lee S(1988)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28 (1), 141-156

Park JS(2009)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hildren and ego-rsilience.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Park JO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ale of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ark HI(2000) Review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eral Education. Keimyung Collage

Shin YJ(2005) The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elf-resili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ng JY, Won HT(1988) The lnfluences of the social support on performances of dual task and anxiety in stressful situation. Korean J Clinical Psychol 7(1), 21-30

Supreme Prosecutor's Office Crime Analysis Meterial 2010.06.28

Werner EE(1984) Resilient children. Young Children 39, 68-72

Wyman PA, Cowen EL, Work WC, Hort-Meyers L, Magnus KB, Fagen DB(1999) Caregiving and developmental factors differentating toung at-risk urban children showing resilient versus stress-affected outcomes: a replication and extencion

Yun HH(1998) Development of prent form ego-resilience scale.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